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사천시 등, 저수지 합동 비상대처훈련 실시

[이종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30일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소재 구룡저수지에서 극한 호우, 태풍, 지진, 으로 인해 저수지 붕괴와 같은 수리시설의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직원과 사천시 관계자(부시장, 사남면장, 건설·재난안전 과장, 팀장 등), 수자원공사 경남 서부권지사장 및 직원, 사천소방서, 긴급동원 업체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합동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상황별 위기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상황발생 시 대처방법, 유관기관 상황전파, 응급복구, 지역주민대피 등을 실전처럼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및 비상대책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뒀다.

박균환 사천지사장은 오늘 훈련이 직원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적 재난대응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만큼, 실제 사항이 발생 하더라도 우리 공사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기적인 시설 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비상상황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선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따라서 이앙기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앞으로 가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해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절수 또는 절약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

편동현 순창지사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정기적 안전점검이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업용수 안정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순창=우기홍 기자